

# 대학생의 교양회계 교육과 재무이해력 수준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l Accounting and Financial Li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윤성용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Sung-Yong Yoon(yoon6@ks.ac.kr)

### 요약

현대 사회에서 재무적 이해에 대한 기본적 소양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재무이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K대 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준을 살펴보고 교양회계 교육이 재무이해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양회계 교육을 실시한 이후 K대 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무이해력 향상을 위한 교양회계 교육은 매우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공별, 학년별로 각 부문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재무이해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프로그램 마련 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중심어 : | 교양회계 | 재무교육 | 재무이해력 | 교양과목 | 재무스트레스 |

### Abstract

In modern society, a basic understanding of financial understanding is recognized as very important for stable economic activities. Advanced countries are operating various regular education courses and programs to improve their financial literacy, but this is not enough for Korea. Recognizing this reality, the study examined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among students at K University and analyzed whether liberal accounting education could be a useful tool to improve financial literacy levels. The study found that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among the students at K University after the education was conducted was very high, so it is deemed that liberal accounting education for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is very effective.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each area by major and grade, so there is a need to develop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when preparing institutional programs to enhance financial literacy.

■ keyword : | Liberal Accounting | Financial Education | Financial Literacy | Liberal Arts | Financial Stress |

##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재무적 이해에 대한 기본적 소양은 기

업경영 및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 증진을 시키고 재무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데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올바른 재무행동은 미래의 안정적 경제활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8년 09월 11일

수정일자 : 2018년 10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1월 07일

교신저자 : 윤성용, e-mail : yoon6@ks.ac.kr

동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재무교육을 보편화하여 재무이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의 절반정도가 OECD INFE가 정한 금융이해력 수준 최소목표점수에 미달하는 등 아직 국가차원의 재무교육 과정과 지속적인 평가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1]. 또한 마스트카드사의 금융이해력 지수보고서(Financial Literacy Index Report, 2016)의 결과에서도 금융이해력 수준이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 17개국 중 12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2].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K대 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준을 살펴보고 교양회계 교육이 재무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용한 도구인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생활속의 회계>를 교양과목으로 시범 지정한 K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교양회계 과목을 수강하기 전 후 재무이해력 수준과 교양회계 교육 후 수준을 비교하여 교양회계 과목이 재무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 재무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여러 가지 재무교육 중 교양회계 교육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그 차별성이 존재한다. 또한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재무교육과 교양과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학의 발전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I 장에서는 서론을 제시하였고, 제 II 장에서는 각국의 재무교육 현황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제 III 장에서는 K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양회계 교육과 재무이해력 수준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IV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II. 선행연구

### 1. 각국의 재무이해력 교육 도입 및 운영 현황

재무이해력 교육은 재무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재무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재무이해력 수준 향상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재무이해력 증진 연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OECD는 2003년 재무교육 및 이해능력에 대한 표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무이해력 일반원칙 개발 및 정부간 통합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08년 3월 재무교육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재무교육 국제게이트웨이(The International Gateway for Financial Education)를 발족하였다. 또한 OECD는 2006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재무이해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수의 국가에서 재무이해력 수준은 낮은 반면 재무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재무이해력 능력 증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3]. 미국의 경우 재무부에서 2002년 재무교육사무국을 설립하고 미 의회도 2003년 재무이해력 및 교육 개선법을 근거로 재무이해력 교육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재무이해력 교육위원회에서는 2006년 재무이해력 국가전략을 공표하는 등 재무이해력 교육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운영중이다. 영국은 재무성(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을 중심으로 2003년 재무관리 능력에 대한 국가 전략을 시작하여 Credit Action, The Talking Economic Project, Citizens Advice Bureau, 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의 4개 분야에 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재무이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2004년 전국 소비자 및 재무이해력 전담팀을 설치하고 2005년 재무이해력 재단(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2008년 재무이해력 재단의 기능을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 이전하여 재무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4].

한편, 한국은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간 비교를 위해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성인의 47.7%가 OECD가 정한 최소목표점수 66.7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경제·금융에 대해 올바른 행위 및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조기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 2. 회계교육과 재무이해력에 관한 선행연구

회계학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으로 기업 실무에서 광범위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 내용이 기업 활동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현미(2011)는 전공과 관계없이 효과적인 회계교육을 받은 학생은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기업 경영의 실무적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 높아 사회진출과 취업기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했으며, 사회 경제현상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교양과목으로 회계교양 과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5].

또한 정진영(2002)은 회계 교육과 사회발전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교육으로서 회계교육을 강화시켜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6]. 홍정화(2007)는 기업 실무를 반영하여 회계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학부과정에서 교양과목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기초교육에 중심을 둔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 김창수, 남천현, 조현연(2001)의 경우에도 회계교육은 회계정보 이용자와 의사결정자들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정보기술에 기반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성이 강조하였다[8].

이상에서 살펴본 회계교육은 재무교육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재무교육과 재무이해력의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Bernheim, Garrett, Maki(2001)은 재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이 차후 자산을 축적하고 저축을 통하여 사회적 기반을 갖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usardi(2008)의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시 재무교육을 받은 학생의 저축률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9][10]. 또한 Borden, Lee, Sefido, Collins(2008)의 연구에서는 재무교육을 받은 대학생이 신용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고 신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재무이해력 수준이 높아짐을 입증하였다[11].

김경자, 홍정하(200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무지식과 재무관리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두 요인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백은영, 배미경, 이승신(2004)의 연구에서도 재무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후 긍정적인 재무관리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12][13]. 또한 최현자, 조혜진(2011)의 연구에서도 재무교육 실시가 대학생의 재무관리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4], 김민정, 이희숙, 김효심, 광민주(2012)의 연구에서도 합리적인 재무관리 행동을 위해서는 재무교육을 학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15].

위에서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에서 재무교육은 올바른 재무관리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재무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경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재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K대 교육사례 분석

###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재무이해력 평가 및 인증제도는 EU,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살펴볼 때 필요성이 이미 확보되었으며, 교육수요자인 기업과 대학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재무이해력 수준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인증수준에 따른 맞춤형 증진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취업활동 시 가산점 확보로 수강생 취업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무문맹퇴치연구소(The Institute for Financial Literacy)의 성인 재무이해력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Adult Financial Literacy)을 제정하여 성인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재무지식 및 기술을 규정하는 성인 재무이해력 교육 국가표준을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인 재무이해력 교육 국가표준은 자금관리, 신용관리, 부채관리, 위험관리, 투자 및 은퇴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K대는 이러한 재무이해력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성인 재무이해력 국가표준을 벤치마킹하여 각 변수를 설정하고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재무이해력 측정변수의 내용

구분	내용	
자금 관리	현금흐름 관리	예산 구성요소 규명
		개인 예산문서 생성
		현재 현금흐름 반영 예산 수정
	개인 순자산	순자산명세서 구성요소 규명
		순자산명세서 작성
		자산 및 부채변동에 따른 순자산 변화 이해
	재무목표 설정	단기 및 장기 재무목표 구분 설정
		재무목표 우선순위 설정
		현실적 재무실행계획 입안
신용 취득	예산 구성요소 규명	
	개인 예산문서 생성	
	현재 현금흐름 반영 예산 수정	
신용 활용	순자산명세서 구성요소 규명	
	순자산명세서 작성	
	자산 및 부채변동에 따른 순자산 변화 이해	
부채 관리	부채 측정	부채 측정 이용 가능 도구
		적정한 부채 규모 결정
		회수(불)가능 부채 차이 이해
	부채 해결	부채 경고 사인
		부채 지원 가능 옵션
위험 관리	보험	다양한 보험상품 구별
		보험요구 이해
		보험 또는 무보험 의미 이해
	위험관리	위험관리 도구 효과 평가
		위험 허용수준 평가
		위험관리 전략 개발
투자 및 은퇴 계획	기획	다양한 투자 대안 구분
		투자상품 구입 금융기관 규명
		은퇴·비은퇴, 적극·비적극 투자 차이 이해
		은퇴계획의 중요성 인식
	전략	투자대안에 대한 위험과 보상 평가
		투자대안의 위험허용 수준 역할 이해
		투자의 법적 의미 이해
	은퇴 재정상황 평가	

자금관리는 현금 흐름 관리 및 순자산 분석이 어떻게 재무 목표 달성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현금흐름관리, 개인 순자산, 재무목표 설정으로 구성된다. 신용관리는 신용을 획득하는 방법과 장소 그리고 신용 사용과 남용 의미에 대한 인지 여부로 신용취득, 신용활용 부문으로 구성된다. 또한 부채관리의 경우 부채 사용이 자산을 형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부채측정, 부채해결로 구성된다. 위험관리는 자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험 관리 전략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험, 위험관리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투자 및 은퇴 계획은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및 은퇴 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 및 전략 부문으로 구성된다.

K대는 재무이해력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자금관리, 신용관리, 부채관리, 위험관리, 투자 및 은퇴 후 계획 부문으로 구분하여 재학생들의 회계 및 금융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재무이해력 영역을 조사하여 향후 효과적인 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K대 학생들의 교양회계 교육 전후 재무이해력 수준을 테스트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교양회계 교육 전후 재무이해력 수준은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대의 <생활속의 회계>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회계 과목을 개설하고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여 동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재무이해력 향상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가설에 대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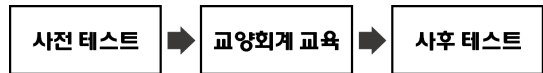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 2. 재무이해력 평가결과 분석

평가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73명, 여학생이 86명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많았으며, 전공별로는 인문사회 계열이 123명, 자연공학 계열이 36명으로 인문사회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7명, 2학년이 44명, 3학년이 47명, 4학년이 61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 평가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학생	73	45.9
	여학생	86	54.1
전공	인문사회	123	77.4
	자연공학	36	22.6
학년	1학년	7	4.4
	2학년	44	27.7
	3학년	47	29.6
	4학년	61	38.4
합계		159	100

[그림 2]는 회계교양 교육 전후의 재무이해력 평균을 비교한 것으로 회계교양 교육 전의 재무이해력 수준은 50.4이였으며, 회계교양 교육 후 재무이해력 수준이 71.7점으로 나타나 재무이해력 수준이 회계교양 교육 이후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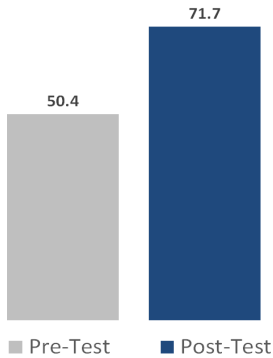


그림 2. 교양회계 교육 전후 재무이해력 비교

[그림 3]은 재무이해력 수준에 대한 교양회계 교육의 효과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교양회계 교육 전에는 신용관리 부문과 투자 및 은퇴 후 계획 분야가 7.1점, 7.7점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분야로 조사되었으며, 자금관리가 10.7점, 위험관리가 12.1점, 부채관리가 12.7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계교양 교육 후에는 투자 및 은퇴 후 계획 부문이 10.3점, 신용관리 분야가 13.8점, 부채관리 14.0점, 자금관리가 15.5점, 위험관리가 18.1점으로 나타나 각각 2.5점, 6.7점, 1.3점, 4.8점, 6.0점이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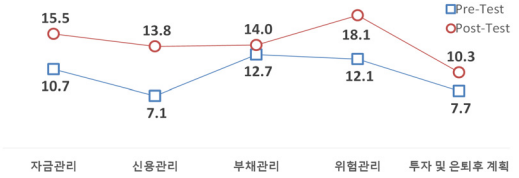


그림 3. 교양회계 교육 전후 재무이해력 부문별 비교

[그림 4]는 교양회계 교육 전후 전공별 재무이해력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인문사회 계열은 52.1점에서 72.7점으로 20.6점의 점수가 상승하였고, 자연공학 계열은 44.6점에서 68.5점으로 23.9점이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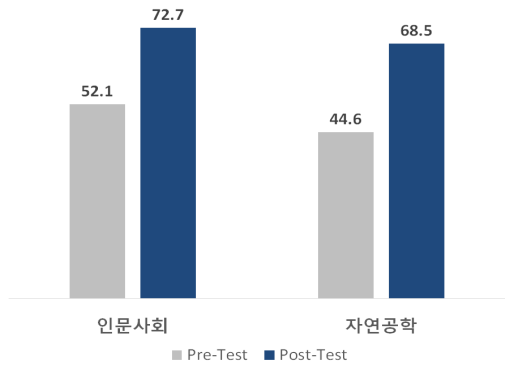


그림 4. 전공별 교양회계 교육 전후 재무이해력 비교

[그림 5]는 인문사회 계열의 교양회계 교육 전후 재무이해력 수준을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살펴보면 인문사회 계열의 회계교양 교육 실시하기 전 자금관리 부문은 11.4점에서 15.4점으로 상승하였고, 신용관리는 7.0점에서 14.9점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부채관리는 13.0점에서 14.3점으로 위험관리는 12.4점에서 18.1점으로 상승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투자 및 은퇴 후 계획 부문은 8.1점에서 10.1점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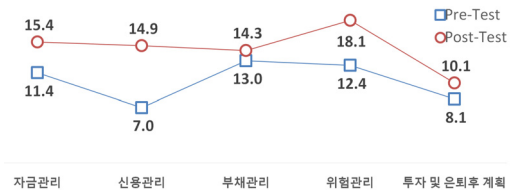


그림 5. 인문사회 교육 전후 부문별 재무이해력 비교

[그림 6]은 자연공학 계열의 교양회계 교육 전후 재무이해력을 부문별로 측정한 것으로 자연공학 계열의 자금관리는 8.5점에서 16.2점으로 상승하였고, 신용관리는 7.3점에서 10.4점으로 부채관리는 11.9점에서 13.1점으로 위험관리는 11.2점에서 18.1점으로 점수 상승이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자 및 은퇴 후 계획은 6.5점에서 10.8점의 점수가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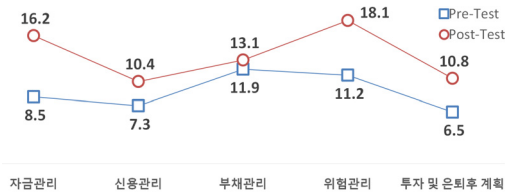


그림 6. 자연공학 교육 전후 부문별 재무이해력 비교

재무이해력 수준에 대해 인문사회 전공이나 자연공학 전공 모두에서 부채관리 부문에서 점수상승이 미비하였고, 특히 투자 및 은퇴 후 계획 분야에서는 4.3점의 높은 점수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용관리 부문은 인문사회 전공과 자연공학 전공 사이에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문사회 전공은 7.0점에서 14.9점으로 대폭적인 점수상승이 존재한 반면 자연공학 전공은 7.3점에서 10.4점으로 상승하여 전공별로 재무이해력 교육의 중심적 요소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은 학년별 교양회계 교육 전후 재무이해력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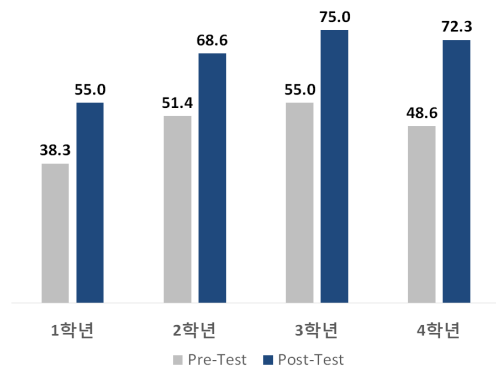


그림 7. 학년별 교양회계 교육 전후 재무이해력 비교

살펴보면 전 학년에 걸쳐 교양회계 교육 이후 점수 상승을 보였으나 1학년은 16.7점, 2학년 17.2점, 3학년 20점, 4학년이 23.7점 상승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 상승의 정도가 높았던 반면 평균 점수는 3학년이 제일 높고 1학년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1학년부터 체계적인 재무이해력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8]은 1학년의 부문별 재무이해력 수준을 교양회계 교육 전후로 비교한 것이다. 1학년의 경우 교양회계 교육 전에는 위험관리 분야를 제외하고는 5~7점 사이의 점수로 재무이해력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양회계 교육 후 점수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투자 및 은퇴 후 계획 분야는 점수 상승이 없고 자금관리 분야는 점수 상승이 미미하여 자금관리와 투자 및 은퇴 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교육에 집중해야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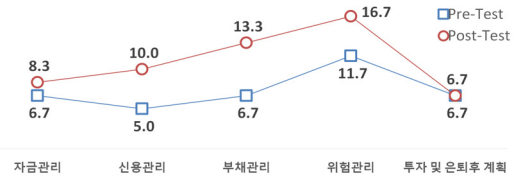


그림 8. 1학년 교육 전후 부문별 재무이해력 비교

[그림 9]는 2학년의 교양회계 교육 전후 재무이해력 수준을 측정하여 교양회계 교육 전 신용관리와 투자 및 은퇴 후 계획 분야가 가장 취약하게 나타났으나 교육 이후 높은 점수상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부채관리는 점수 상승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금관리는 2.8점, 위험관리는 5.7점의 점수 상승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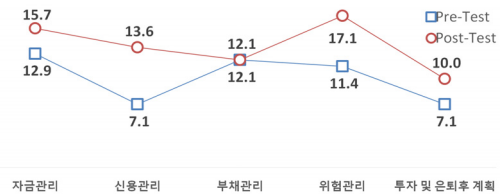


그림 9. 2학년 교육 전후 부문별 재무이해력 비교

[그림 10]은 회계교양 과목을 수강한 3학년을 대상으로 재무이해력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신용관리가 14.4점에서 7.9점으로 6.5점의 점수 상승이 있었으며, 자금관리가 11.2점에서 16.5점으로, 위험관리가 12.6점에서 18.5점으로, 투자 및 은퇴 후 계획이 9.4점에서 11.5점으로 상승하였으나 부채관리는 13.8점에서 14.1점으로 0.3점이 상승하여 미미한 상승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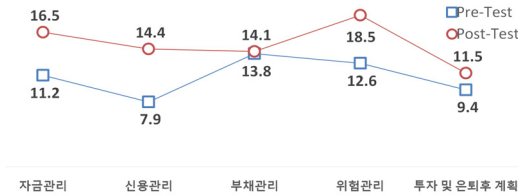


그림 10. 3학년 교육 전후 부문별 재무이해력 비교

[그림 11]은 4학년의 교양회계 교육 전후 재무이해력 수준을 비교한 것으로 자금관리가 10.4점에서 15.7점으로, 신용관리가 6.8점에서 13.9점으로, 위험관리가 12.0점에서 18.2점으로, 투자 및 은퇴 후 계획이 7.0점에서 10.0점으로 상승하였으나 부채관리는 12.9점에서 14.5점 상승하여 그 상승폭이 미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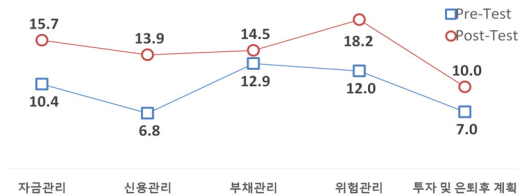


그림 11. 4학년교육 전후 부문별 재무이해력 비교

전체적으로 교양회계 교육을 실시한 이후 학년별 재무이해력 수준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신용관리 부문이 가장 취약했으나 교양회계 교육 이후 가장 높은 점수 상승이 있었고 자금관리와 위험관리 분야도 큰 폭의 점수 상승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부채관리 분야에서는 1학년을 제외하고는 점수 상승이 없거나 미미하였으며, 투자 및 은퇴 후 계획 부문의 점수는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양회계 교육 이후에도 가장 낮은 점수 순위를 기

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관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크고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반면 다른 분야의 경우 개인의 경제적 경험과 활동에 비추어 관심이 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재무이해력 교육이 이론 및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도 일정한 기대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겠으나 아직 초창기인 재무이해력에 대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연구하여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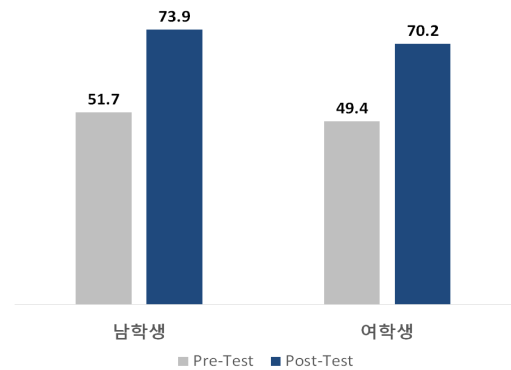


그림 12. 성별 교양회계 교육 전후 재무이해력 비교

[그림 12]는 성별로 구분하여 교양회계 교육 전후의 재무이해력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남학생은 22.2점, 여학생은 20.8점이 상승하여 남학생이 조금 더 높은 점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그림 13]은 남학생의 교양회계 교육 전후 재무이해력 수준을 측정할 결과로 남학생의 경우 교양회계 교육 전 신용관리가 7.0점, 투자 및 은퇴 후 계획이 8.0점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양회계 교육 후에는 신용관리 부문에서는 7.1점의 대폭적인 점수 상승이 있었으며, 자금관리, 위험관리에서도 큰 폭의 점수 상승이 나타났다. 반면 부채관리 부문에서는 점수 상승이 미미하였으며, 투자 및 은퇴 후 계획에서는 점수 상승이 존재하였으나 그 폭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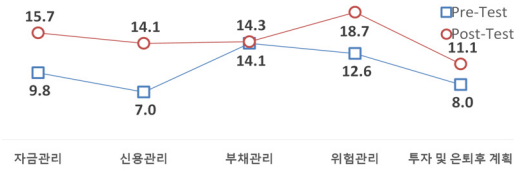


그림 13. 남학생 교육 전후 부문별 재무이해력 비교

[그림 14]는 교양회계 교육 참여자 중 여학생을 대상으로 재무이해력 수준을 측정된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도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관리가 회계교양 교육 전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조사되었으나 회계교양 교육 이후 6.4점이 상승하여 큰 폭의 점수 상승이 있었으며, 자금관리, 위험관리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 상승을 보였다. 반면 부채관리와 투자 및 은퇴 후 계획 부문에서는 점수 상승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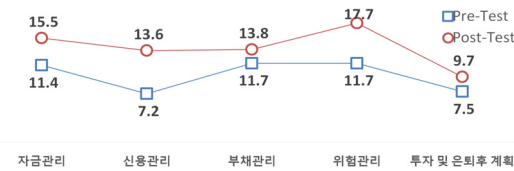


그림 14. 여학생 교육 전후 부문별 재무이해력 비교

성별에 따른 재무이해력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각 부문별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재무이해력 교육을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양회계 교육의 재무이해력 증진 효과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교양회계 교육을 실시 전후 재무이해력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t통계치는 -18.23으로 유의확률 1%수준에서 재무이해력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양회계 교육이 재무이해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 결과로써 여러 가지 재무교육 중 교양회계 교육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 재무이해력 차이분석 결과(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N
사전평가	50.4	13.27	-18.23	0.00**	159
사후평가	71.7	11.87			

\*P<0.05, \*\*P<0.01

#### IV. 결론

선진국의 경우 재무이해력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K대 학생들의 재무이해력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고 회계교양 과목 교육이 재무이해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교양회계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재무이해력 수준이 평균 50.4점에서 71.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여 교양회계 교육이 재무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 가설은 지지되었다.

K대 학생들의 전공별, 학년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 인문사회 계열은 20.6점 상승하였고, 자연공학 계열은 23.9점이 상승하여 자연공학 계열 학생들의 점수 상승폭이 높았으나 평균은 인문사회 계열이 72.5점, 자연공학 계열이 68.5점으로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았다.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는 1학년 16.7점, 2학년 17.2점, 3학년 20점, 4학년 23.7점이 각각 상승하여 고학년일수록 높은 점수 상승을 보였던 반면 평균은 3학년이 제일 높고 1학년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남학생이 22.2점, 여학생이 20.8점 상승하여 남학생이 조금 더 높은 점수 상승을 보였다.

한편, K대 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준을 각각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별로 구분한 각 부문에서 부채관리 분야가 전체적으로 점수상승이 미미하였고, 투자 및 은퇴 후 계획 분야는 높은 점수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어 부문별 재무이해력 교육의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신용관리 부문에서 인문사회 전공은 점수상승이 높은



반면 자연공학 전공은 조금 상승하여 전공별 재무이해력 교육의 요소를 달리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학년별 재무이해력 수준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신용관리, 자금관리, 위험관리 부문이 교양회계 교육 이후 높은 점수 상승이 존재하였다. 반면 부채관리 분야는 1학년을 제외하고는 수준 향상이 미미하였으며, 투자 및 은퇴 후 계획 부은 교양회계 교육 이후에도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이슈와 개인의 경제적 경험 및 활동에 따라 부문별 관심의 수준이 다른 것으로 생각되며, 재무이해력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연구하여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이해력 수준 향상을 위해 교양회계 과목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 재무이해력 향상을 위한 교양회계 교육은 매우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교양회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전공별, 학년별로 재무이해력 수준 향상에 차이가 존재하여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을 K대 학생들로 한정하여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재무이해력 수준 향상이 사회 진출 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금융감독원,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2017.  
 [2] Mastercard, *Progress Towards Financial Wellbeing is Stagnant across Asia Pacific*, 2016.  
 [3] OECD,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OECD Policy Brief*, 2006.  
 [4] 김진태, 배수진, 한형성, “우리나라 대학생의 재무이해력: 중앙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학 연구, 제4집, pp.107-134, 2016.

[5] 지현미, “사회진출용 회계교육 수요에 대한 현황 분석,” 회계정보리뷰, 제16권, pp.23-45, 2011.  
 [6] 정건영, “사회발전과 회계의 역할 및 회계교육,” 회계정보리뷰, 제7권, pp.59-83, 2002.  
 [7] 홍정화, “우리나라 대학의 회계학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분석,” 상업교육연구, 제17권, pp.153-176, 2007.  
 [8] 김창수, 남천현, 조현연, “회계환경 변화와 회계학 교육의 개선방향,” 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pp.273-303, 2001.  
 [9] B. B. Douglas, D. M. Garrett, and D. M. Maki, “Education and Saving: The Long Term Effects of High School Financial Curriculum Mand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80, No.3, pp.436-466, 2001.  
 [10] A. Lusardi, *Overcoming the Saving Slump: How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Education and Saving Program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008.  
 [11] L. M. Borden, S. A. Lee, J. Serido, and D. Collins, “Changing College Students’ Financi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hrough Seminar Particip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29, No.1, pp.23-40, 2008.  
 [12] 김경자, 홍정하, “대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 교육 내용 개발을 위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제22권, 제1호, pp.5-17, 2002.  
 [13] 백은영, 배미경, 이승신, “재무교육이 미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재정관리 행동문제 인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8호, pp.219-233, 2004.  
 [14] 최현자, 조혜진, “금융교육과 금융거래경험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2권, 제4호, pp.55-75, 2011.  
 [15] 김민정, 이희숙, 김효심, 박민주, “개인재무관리 관련 교양과목의 대학생 금융이해력 증진에 대한 효과,”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8권, 제4호, pp.71-91, 2012.

저 자 소 개

윤 성 용(Sung-Yong Yoon)

정회원



- 1999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학사)
- 2001년 2월 : 경희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석사)
- 2010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자본시장, 가치평가, 융·복합 회계, 대학 재정